# 한평생 권문(權門)에 봉사(奉仕)해온 권영한(權永漢) 부총재

△낭중공 단소이단후 권영한 이단추진위원장이 감회에 젖어있다.

△일진운수 권영한 회장집무실에서

△일진운수 회사 차고지에서

△일진운수 사훈과 직원명패

사월 화창한 봄날 남부터미널에서 첫차를 타고 10시반 통영터미널에 도착하니 영한 부총재님이 마중 나왔다. 통영은 몇 번 와보았지만 오늘 발을 디디니 감회가 새롭다. 권영한(權永漢)부총재는 30여년 전부터 서울에 올 때마다 중앙종친회에 자주 들린다. 그만큼 안동권씨종친회에 애착(愛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부산종친회관 마련, 중앙종친회관 마련, 낭중공단소 이단 등에 기천만원씩을 쾌척하면서 공무출장에도 사비를 써가며 오직 문사를 위해 헌신하는 통 큰 분이기에 통영에서 경영하는 택시회사도 상당한 규모의 회사려니 생각하고 통영시 무전동 994번지 일진운수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작은 회사였다. 사장실과 사무실 그리고 차고지, 정비소, 택시 60 여대가 전부였다. 문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출연하는 마음은 재력가여서도 아니고 오직 선조님과 문중을 위한다는 숭조(崇祖)정신(情神)이 내재(內在)하는 사람만이 있을 수 있다는 철칙(鐵則)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였다.

## 권회장의 가계

권 부총재는 현재 부산종친회 고문이며 복야공파(僕射公派) 36世로서 종정공(宗正公)계 감정공(監正公) 휘 집덕(執德)의 20세손으로 1940년(庚辰年) 경남 합천군 대병에서 출생하여 산청 단계(丹溪)에서 자라고 부산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증조부 33세 휘 직(直)공은 대 유학자로서 문집 금리집(錦里集)을 남겼고 조부 휘 재이(載二)공은 화산집(華山集)을 남겼다. 선친 휘 병종(秉鐘)공의 엄격한 훈도(訓導)로 영한회장은 강직하고 매사에 철저하면서도 유순(柔順)한 성품을 지녔는데 아마도 선친의 훈육의 결과이리라

외가(外家) 또한 유학자 집안으로 영남(嶺南)의 유생(儒生)들은 모르는 이가 없는 가문으로 외증조부 겸산(謙山) 문용(文龍)공은 파리장서(巴里長書) 사건에 가담한 독립유공자이시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김창숙(金昌叔)선생이 주동이 되어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보내려다 발각이 되어 1919년 4월2일 전국유림대표 곽종석(郭鍾錫), 김복한(金福漢) 등 137명이 일경에 체포되어 화형을 당한 사건이다.

유림들이 3·1운동 발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로 장서운동을 일으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그 하나는 독립선언서에 왕조의 복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서명하는 것은 한국 유림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학문을 배우며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은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표창(2007.4.30)과 우수업체 지정서

이분들은 독립기념관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외조부 문존호(文存浩)공은 오강집(吾岡集)을 발행하고 외삼촌 면취(免翠) 문백(文百)공도 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영한 부총재와 대담하며 본인이 술회하는 말과 필자가 평소 지켜본 결과를 종합 구성하였다.

영한(永漢)부총재는 선친 병종(秉鐘)공과 자당 문경남(文慶南)여사 사이의 3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학(漢學)을 배우고 그 당시 합천 초계에서 후학을 기르고 있는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공[태동서원(泰東書院)에 배향]이 단계에 유하고 간 적이 있는데 33년 후 부산종친회에서 권종근(權宗根)회장과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한씨를 생생히 기억하고 말하는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성건설(大成建設)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부산에 종합건설회사가 30개 밖에 없을 때였다. 8년간 일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부사장이 타 회사로 전출하게 되어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자신도 건설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야심찬 생각을 하던차라 기방건설(紀邦建設)주식회사 전무이사(專務理事)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한 씨는 **40대인 1980년도 드디어 꿈꾸어왔던 경남 마산 소재 대아건설(大亞建設(株)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건설회사가 전국에 450개 밖에 없으며 건설업 허가가 나지 않아 면허권 양수를 할 때였다. 이때 중기(重機)도 몇 대 보유하고 있어 사업은 잘 되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남신문(慶南新聞)주주(株主), 마산상공회의소(馬山商工會議所) 위원을 겸직하고 다시 大亞레미콘회사를 설립하여 밤낮없이 분주히 일하였다. 성실함이 주위에 알려지자 영한(永漢)회장은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직을 맡게 되고 현재까지도 동아대학교 동문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 일진운수의 경영철학

그러나 젊은 시절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면서 의욕이 넘치게 일을 하다 보니 건강이 여의치 않아 건설회사를 정리하고 1986년 통영에 있는 유한회사 일진운수(一眞運輸)를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회사 사훈은 친절하게, 안전하게, 깨끗하게 이다. 밖에 내건 프랑카드도 이와 비슷하다. 손님을 모시는 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며 회장님 경영철학 인듯하다.

**'브랜드택시 '통영콜' 출범'** 2013년 1월 3일 경남신문에 톱기사로 실린 기사이다. 그러고 보니 택시 표지판이 '통영콜'이다. 영한회장이 발의하여 통영시 5개 택시회사가 통영의 관광발전에 기여코자 명칭을 통영콜로 하고 호출번호를 645-0000 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이 전화로 고객이 호출하면 GPS로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여 가까운 곳의 택시가 고객을 맞이하는 고객지향형 택시인 것이다. 고객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권영한 브랜드콜 추진위원장은 보다 나은 서비스와 친절로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며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관광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보니 **통영은 관광의 명소이다.**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미륵산을 비롯하여 한산섬, 매물도, 비진도, 장사도, 욕지도, 연화도, 사량도, 멀리 해금강까지 선착장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안가는 곳이 없다.

권회장의 통영시를 위한 헌신은 이뿐만 아니다. 종전에는 버스 터미널이 시내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통영운수회사조합 임원인 회장의 노력으로 현재 자리로 이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권회장은 일진운수를 인수하자 기사들이 내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사간 화합의 일환으로 모범사원을 선발하여 일본, 중국, 금강산, 제주도 등 여행을 보내기도 하고 사훈인 손님을 친절히 모시고 택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안전운행을 하여 승객이 일진운수를 타려고 하도록 하는 경영목표를 세웠다 한다. 가족 단체관광을 보낼 때는 경비도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히 여행하고 돌아와야 마음이 노인다고 하였다.

드디어 1986년 교통부장관의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모범회사로 선정되어 경남도지사 표창을 2번 받고 국무총리표창과 2007년 4월에는 노무현대통령 표창을 청와대에 가서 수상한바 있다.

권회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였는데 30여 년간 부산, 경남 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 성금도 쾌척하고 있으며 중학교 육성회장, 고등학교총동창회장직을 맡으며 성금과 장학금을 쾌척하였고 일가친척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지 필자와의 대담에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 여러 가지 자료와 보이는 것들을 유추하여 유도해 내면 그때서야 지난 일들을 이야기 하곤 하였다. 장사도(長巳島) 바람이나 쏘이자 하여 2시 배를 타고 섬 주위를 둘러보는 중에도 본인의 취재는 계속되었다.

영한(永漢)회장은 선대의 묘지를 성묘(省墓)치 않는 현 세태(世態)에 궁리 끝에 5년동안 일가친척들에게 동의를 받아 25세(世) 송암공(松岩公) 휘 斗秉이하 문중 선대의 묘지를 1991년 합천 대병 조항(槽項)에 가족묘지를 조성하여 70 여기를 이장하면서 1930년 건립한 회장의 증조부 직희(直熙)공을 위한 재사 금리정(錦里亭)을 이건하고 묘지조성공사에 거금을 솔선하여 내 놓았는데 그 당시는 '타 성씨들이 안동권씨 권모가 선조묘지를 이장한다고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다고들 합니다.'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아닐 수 없다.

## 권문대사에 앞장선 권영한 회장

권회장은 30대부터 부산종친회(釜山宗親會)에 참여하여 문사를 도우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마침내 1990년 50세의 젊은 나이에 부산종친회장(釜山宗親會長)에 선출되니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였다고 한다. 당시 종친회는 기금 2천만원이외 아무것도 없어 족친들을 초청하여 사무실도 없으니 이참에 회관을 마련하자고 설득하여 본인이 2천만원을 선두로 모금하여 권길상회장이 1,300만원(누계) 등으로 2001년 부산진구 전포2동 신우빌딩 311호에 건평 약40평을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1년은 부산종친회 25년사도 발행하였으며 이후 역대 회장들의 노력으로 전국 제일가는 모범종친회로 발전시켰다.

건설회사를 맡고 있을 때는 서울 출장을 자주 가게 되면서 중앙종친회에 들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1976년10월 중앙화수회를 창립하면서 회원에 가입한 것이 인연이 되어 1985년 권이혁(權彛赫)장관님이 회장에 선출되면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당시는 종로구 당주동 세종맨션 407호에 중앙종친회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역대회장님들이 회의 때마다 안동권문의 상징인 회관마련 이야기가 있었지만 추진이 안 되던 차 1998년 연말 화산회 송년회때 **회관 마련을 위하여 세종호텔에서 영한회장이 발의하여 선두에서 2천만원을 쾌척하고 이혁장관이 1천만원 등 약 1억원을 모금하고** 년차 모금으로 권찬혁부회장이 1억원을 쾌척하여 1999년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건평 384평 4층 건물을 매입하여 숙원사업이던 반듯한 안동권문의 회관을 마련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하였다.

대종회(大宗會)와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가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권문 모두가 열망하는 바 몇 십 년을 두고 협상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2005년은 청도 추향제에 대종회측이 무리한 조각을 통과시키려다 참제원들에 의해 저지되고 드디어 송사에 이르는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법원은 2006년 8월 권모 대종회장 무효선고에 따라 중앙종친회장인 권정달 안동화수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대종회장 권한대행이라 판결하여 2007년 11월 추향 대당회에서 권정달 중앙종친회장이 대종회장(大宗會長)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힘입어 2009년 5월 중앙종친회 33차 정기총회에서 권영한 부회장이 긴급 발의하여 중앙종친회와 대종회의 통합을 결의하고 추향 대당회에서 의결하여 권문(權門)의 대동통합(統合)을 완수(完遂)하자고 하여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

동년 추향 대당회에서 중앙종친회 5명 대종회 5명의 추진위원회을 구성하여 통합을 논의 하자고 발의하여 서울과 안동에서 수차 회합을 가지고 명칭을 안동권씨대종원으로 하며 기구조직과 정관을 확정하여 2011년 6월7일 국방회관에서 양대기구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총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명실공히 100만 거족(巨族)이 통합된 안동권씨대종원(安東權氏大宗院)이 탄생하게 되었다.

청도의 낭중공단소(郞中公壇所)는 권재영(在永)대종회장 때 논의가 있었으나 1988년 중앙종친회에서 묘지를 정비하고 진입로를 구매하여 향사를 지내오다가 자손들의 참제가 줄어들고 더 큰 문제는 낭중공 생거지(生居地)가 청도 공암촌이라는 설에 의구심이 많이 일게 되었다. 조선 영조조 경상감사 권혁(權爀)공께서 조사하고 고종조에 권돈인(權敦仁)공께서 두루 조사하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근거 불명인 청도 단소를 안동 시조님 곁으로 이단하자는 중론(衆論)이 일어 2008년 추향 대당회(秋享大堂會)에서 이단(移壇)을 결의하였다. 이단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추진위원장을 선출함에 필자는 수년간 관찰한 결과 권영한부회장이 가장 적임자라 판단하여 제안한바 합의되었다. 이단추진위원 10명이 구성되고 사업을 착수하려는데 일부 반대에 부디쳐 권릉을 파보자는데 합의하였다. 영익부회장, 길상회장, 영성, 중원회장과 문화재관리위원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권릉 2기를 파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된바 없었다. 이로서 300년간 이어온 낭중공의 청도 설은 종지부를 찍고 **단소이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권영한회장은 서울 부산 등 여러 문중 어른, 사업가를 만나 이단 성금을 기필(起筆)받아 모금하게 되고 본인도 1천만원을 쾌척하면서** 어르신들의 헌성에 500만원을 추가 자담하면서 여비 등 잡비는 본인이 지출하는 성의에 필자는 감탄치 않을 수 없었으며 물론 총재단과 각 파종회장님들의 합심도 있었지만 영한 부총재가 아니었으면 단시일내에 2억여원이 모아지고 또 풍수가 권대성(權大成)불교박물관관장과 동행하여 능동재사 옆 터를 살피니 천령지기(天靈地氣)가 뭉쳐 맺힌 대길지(大吉地)라 하며 유좌묘향으로 좌향을 잡으니 추진위원들이 환호성을 쳤다.

△국무총리 표창받고 기념촬영

△2008년 시조묘소 춘향제후 기념촬영

권회장은 선조 숭배정신이 강하고 시조님 향사(享祀)뿐만 아니라 운곡서원(雲谷書院)향사에 정장(韓服)을 하며 입재(入齋)일부터 향사 예필(禮畢)까지 경건한 마음가짐이 남달라 필자의 눈에 띈 바 수십 차례이니 천성(天性)이 권문을 위해 태어난 듯하다. 예절(禮節)과 보학(譜學)에 밝으니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제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씨는 항상 바르게 살고 남에게 폐 끼치지 말자는 좌우명을 실천철학으로 삼아 생활해 오면서 자립(自立), 건강(健康), 검소(儉素)를 가훈으로 부인 선산김씨 옥순(玉順)여사와 1967년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며 김여사는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여 반평생 교직에 몸담아 거창가조초등학교, 거창상업고등학교, 부산가야 가산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교육자이며 자녀를 박사로 길러낸 전형적인 현모양처(賢母良妻)이다.

장남 대식(大植)씨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부산에서 권대식내과병원을 개업하여 국민건강에 앞장서고 있으며 부산대를 졸업한 김경심(慶心)과 결혼하여 유지(釉知), 준수(俊秀) 남매를 두고있다. 차남 무식(茂植)씨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카네기멜른연구소에 근무 중 삼성전자에 픽업되어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대 전자공학과 석사출신인 조혜리(趙惠利)와 결혼하여 준엽(俊燁), 지민(知民), 남매를 두고 있으니 다복(多福)한 집안이다. 이 모두가 권회장의 심덕(心德)이 깊은 후광이 당대에 받음일 것이다. 추가하여 재종 권해상(海相)씨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OECD 본부 부대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외무고시에 수석합격한 권해룡(海龍)씨는 외교부 유네스코 차석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권회장의 걸어온 길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니 케네디 미국대통령이라 하고 정주영회장의"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에 감명받았다 한다. 위 두 가지가 영한(永漢)회장의 본래의 모습인 듯하다. 씨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아마도 세계를 돌아본 견문을 사업에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듯 하였다.

(편집인 권경석)

△권영한 회장 부부와 가족들

△합천 대병 조항의 금리정(錦里亭)

△대병조항의 금리정재실 앞에서

△합천 대병 조항에 25세 송암공 이하 가족묘지조성(1991년)